

울림과 잠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제 32 호 2022 년 10 월

소공동체지 편집부

반모임 순서

-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 기도
- II. 묵상
 -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 복음 읽기
 - † 말씀에 머물기
 - † 말씀의 울림
 - † 말씀에 잠김
-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 V. 소공동체 기도문
-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8 1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2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4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5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6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7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의 울림

- 1 절: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The necessity for them to pray always without becoming weary.”)
 힘들고 지칠 때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 3 절: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Render a just decision for me against my adversary.”)
 살면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힘듦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께에서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말씀에 잠김

8 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But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몸과 마음이 지쳐 기도할 힘마저 없이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의 괴롭힘이 귀찮아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 준다는 예를 드시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정의로 구원하실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희망을 우리는 얼마나 굳게 간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불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불의에 맞서 나름대로 용감히 투쟁해 본 적도 있으나 결과는 상처와 손해뿐임을 깨닫고,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배웠다고 합리화한 적도 있습니다. 각각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바라는 점이 정의로 둔갑하는 세상에서 싸움은 의미가 없다고 여긴 적도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나의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오롯이 간직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삶 속에서 갖은 모욕과 비난과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당할 때면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이기보다는, 받은 상처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억울한 마음에 울부짖으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통 고난과 역경의 연속인 삶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 와서 보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이집트로 피난 가시던 고난의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성모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하고 견디어 내셨을지요? 성모님을 본받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주 기도를 드리고, 그 신비를 묵상하며,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떠한 고통도 희생으로 참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8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의 울림

- 17 절: “더러는 의심하였다.”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but they doubted.”)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 20 절: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until the end of the age.”)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시다.

말씀에 잠김

20 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until the end of the age.")

젊은 20~30 대 때에는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라는 말씀을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 열심히 말씀 봉사며 교육 방면으로 봉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풋풋한 마음으로 봉사하였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했고 어찌면 40 대 후반까지도 그렇다고 생각하여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봉사에 주력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감이 저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으로 '신앙심은 이래야 한다는 오류와 더불어 드러나는 복음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사명 의식이 제가 눈에 띄고 드러나지는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내어놓겠다고 했던 것이 어느 날 탈진 현상을 느끼면서 좀 조용히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뭐야? 봉사하면 기뻐야 하는데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봉사가 일이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고, 제가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보다 봉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을 알았습니다.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정말 다르지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정말 기쁨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주님과 함께 깊이 잠기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말씀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이 그날그날 제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봉사하면 정말 봉사하는 시간 내내 기쁨과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설사 봉사하는 중에 예기치 않은 불협화음을 느낄 때라도 흔들리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은 옳은 정신으로 저를 꼭 잡아줍니다. 예전의 세상에서 복음 선포가 말로 알리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미숙함이 한해 한해 지나며 그 복음 선포의 초석은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머물며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에 힘 얻어 힘껏 허리를 졸라매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예전의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조용히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 주님과 함께하심을 믿으며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뎌 봅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아이와 함께 키워가는 신앙심

민병선 요한

목요일 저녁 6시 서둘러 일을 마치고 큰아이와 함께 저녁 미사를 드리러 집을 나섭니다. 저녁 미사 때 저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드리고 아이는 복사를 서며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는 7시 30 분이지만 저의 찬양팀 연습 때문에 딸아이는 저와 함께 한 시간이나 일찍 성당에 도착합니다. 작년에 큰아이가 첫 영성체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사단 모집 안내가 있었습니다. 모집 안내를 보고 아이에게 복사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 망설임 없이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심을 갖고 자라길 바랐던 저희 부부는 아이의 대답이 반갑고 대견했습니다.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돌이켜보니 어머니가 미사에 같이 가자고 해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미사를 빠지곤 하던 저의 모습과는 다른 딸아이가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신부님의 2달 동안 빠지지 않고 저녁 미사를 드려야 복사를 설 수 있다는 시험 같은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제대에 올라 복사를 서는 것이 쉽지 않고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평일 미사를 드리지 않던 저에게 저녁도 챙기지 않고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미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됐지만, 아이가 하고 싶다는 말에 아이와 같이 미사를 드린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미사를 드리러 오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님께서 아이가 복사를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찬양팀 멤버의 자리를 이어받아 미사 중에 찬양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녁 미사 시간은 복사를 서는 딸에게도 찬양을 드리는 저에게도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이도 복사를 서는 것을 좋아하고, 그보다 제가 평일에 미사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미사를 드리러 성당을 오가며 저는 한 가지 더 감사드릴 일을 깨닫습니다. 길지 않은 오가는 시간 동안 저와 아이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저의 어린 시절을 궁금해하는 아이에게 옛날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릴 적 부모님과 성당에 다닌 일, 주일학교 갈 때 혼자 걸어갔던 일 등을 이야기해 주면 아이는 신기해하면서 재미있어했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정말 많이 달라진 저의 신앙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듣기도 하고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그날 미사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에게 말씀과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아이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에서 예수님께 기도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한동안 저녁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저녁기도를 모두 모여 드리지 못했는데 아이는 늘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녁기도를 게을리했음에도 혼자 알아서 기도를 드린다는 말에 참 기특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신앙심을 길러줄까 고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저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냉담하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다가갈 수 있음을 허락해 주셨고 부모인 저희가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오히려 아이를 통하여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아이들과 가족 모두를 사랑하시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동네방네 메아리

- **AA2** : 믿음조 모든 반장님 및 조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하여 의미 있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BL1** : 먼저 평화팀을 이끌어 주신 트로이 반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교우님들과 의미 있는 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 **WBL**: 사랑조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아주 큰 행운이었고요. 반가운 구성원들과 나누는 음식과 대화도 무척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날씨까지도 모두의 몸에 활기를 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못 뵈던 분들과 새롭게 인사한 분들도 반가웠습니다. 내년도 기대되네요.
- **NV2**: 행사 시작 전 준비부터 미사 후 식사, 게임,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뒷정리까지, 모든 조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들에 더하여 날씨마저도 아름다웠던 본당의 날이었습니다. 더욱이, ‘음식이 모자라면 어찌나...’ 하는 것은 기우였고, 본당에서, 또 각자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 권하고 즐겁게 나눠 먹으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하늘나라가 멀리 있지 않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TR1** : 우리 평화팀은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척척 알아서 해 주셔서, 우리 성당 신자들의 배려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 오셔서 생일상보다 더 푸짐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미사 전에 장내 정리를 하셔서 차분히 미사 진행되어서 좋았고,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셔서 그런지 게임이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준비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사랑팀에게 피구를 진 저희 팀 여성 팀원들께서 내년에는 동네 공터 주차장에 모여서 연습하여 설욕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는 "무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TR4**: 22년 본당의 날 행사를 구역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함께하여 너무 즐거웠고 본당의 여러분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 **RC1**: 반 분들의 정성과 기도속에서 행복한 야외 미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 **RC2**: 좋은 날씨에 여러 교우분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천사항

1. 하루에 한 번씩 화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성모님의 곰곰이 생각하시는 모습을 새기기
2. 하느님께 감사하며 단풍 구경, 애플 피킹, 와이너리 투어 등 가을 야외 활동에 참여하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주최)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주최)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